

Robert Vannoy, Exodus to Exile, 강의 3B

시내산에서 율법

D.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10 1. 시내산 언약의 성립 - 출애굽기 19-24:8

†. 제시된 언약 - 출애굽기 19:3-8

로마 숫자 II 아래의 D로 가봅시다. “시나이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10.”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했고 민수기 10장 10절에서는 시내산을 떠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 레위기 전체, 민수기의 처음 10장은 모두 시내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약 2년의 기간입니다. 개요에 여러 하위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 “시나이 언약의 수립 - 출애굽기 19-24:8, 그 아래에 6개의 하위 항목 포함. 첫 번째 소문자 a는 “제시된 언약 - 출애굽기 19:3-8”입니다. 그들은 처음 두 구절에서 시나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르비딴에서 출발하여 시나이로 오는 것을 봅니다. 3-8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말하고 백성에게 고할 말을 이스라엘: “내가 애굽에 행한 것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직접 보았느니라.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온 땅이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돌아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르라고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전하니라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을 때 부름을 받은 이후로 이스라엘이 시나이 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장 12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 이제 3장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십시오. 호렙산에 있습니다.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곳입니다. 이것이 시나이 산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이하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그들의 종 되었던 너희를 해방하고 편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하시고 7절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멍에 밑에서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손을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 6, 7, 8절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6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너희를 시내산에서 내 백성으로 삼고” , 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시내산에서 내 백성을 삼고 인도하여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면 7절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온전히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소유물” 이라는 말은 참으로 하나님 자신의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소유물이 될 것입니다.”

1. 언약의 조건성 “네가 만일 내게 순종하면”이라는 조건문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조건문은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올드 스코필드 성경 주석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 성경에서 19:5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에 대한 주석이 “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 은혜 아래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니라” 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주석의 제안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의 기초는 실제로 율법인 반면, 신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의 기초는 믿음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한 것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들이 한 일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동일한 스코필드 성경이 이스라엘이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솔하게 말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19페이지의 인용문을 보십시오. Walter Kaiser의 *구약 신학*  
*에서* 그가 이 조건문에 대해 말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 그는 “이 언약은  
족장들의 약속 언약에서 '순종이 축복의 절대 조건'이라는 조건부 언약으로  
의도적으로 변경한 것인가? 이것이 '하강' 과 '실수' 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거래를 거부'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레위기 26장, 신명기 11장의 “if” 진술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 는 명령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히브리 *레마안이*  
네가 살고 복을 받고 네가 얻을 땅에서 장수하라(신 5:33) 이러한 질문에  
함축된 대조는 본문에 비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이 언약의 의무적 성격이  
언약적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근거가 된다면 족장 신학에 관한 장에서  
언급한 조건문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은 분명히 조건부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조건으로? 이 문맥에서 그것은  
땅의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독특한 위치, 이스라엘의 중재적 역할  
및 거룩한 나라로서의 지위에 대한 조건이었습니다. 요컨대, 그것은  
이스라엘의 성화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역의 경험을 자격을 부여하거나  
방해하거나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선택, 구원 또는 고대

약속의 현재와 미래의 상속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언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기 위해' ( 목적 절로 *lema'an* )가 아니라 그녀를 위해 일이 잘 풀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결과로' ( 결과 절로 *lema'an* ) 그녀는 신명기 5:33에서 그녀를 위해 진정한 삶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문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몇 분 후에 다시 다룰 것입니다.

조건문은 이스라엘이 은혜를 법과 바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구속하였고 내게로 인도하였노라. 이제 내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약의 첫 제시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가.”

## 2. 소중한 소유물

나는 “보배로운 소유”라는 표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의 다른 곳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70인역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약에 표시된 칠십인역을 따라 신약의 그리스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배로운 소유물” 로 번역된 단어는 *세구라*입니다. 그것은 “소유” 또는 “재산”을 의미하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것은 다소 드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족 언어, 즉 또 다른 셈족 언어로 나타났습니다. 우가리트 서신에는 위대한 왕인 히타이트 종주국이 우가리트 왕을 그의 사유 재산인 세구라(segurah)로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신 왕인 우가리트 왕을 자신의 소유나 사유 재산으로 묘사하기 위해 세 구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히타이트 제국의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어떤 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따로 떼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모세가 말한 신명기 7:6 에서도 사용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 곧 자기 소유로 택하셨느니라.” 신명기 7:6입니다. 신명기 14:1-2,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बे지 말며 앞머리를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니라 여호와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당신을 자신의 보배로운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오늘날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자기의 백성이요 자기의 스구라 요 자기의 소유요 자기의 사유재산이라고 선언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지니라 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신약성경을 읽을 때 디도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 정화하십시오.” NIV는 “그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헬라어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구약 성경에서 세구라를 번역할 때 사용한

헬라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선한 일을하기를 열망하는 자기 소유의 백성”이라는 헬라어 표현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King James Version에 익숙한 분들은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를 주셨으니” 이제 “특이한 사람들”, 제임스 왕은 왜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까? 음, 고대 영어에서 “peculiar”는 “개인에게 속한” 또는 “개인 소유”를 의미했습니다. 거기서 당신은 단어의 의미에 있어 엄청난 변화를 보았고 동시에 400년 전보다 오늘날 사용되는 영어를 사용하는 최신 번역이 더 필요한 이유를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특이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겠지만, “소유”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특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상하다는 의미에서 특이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King James 번역 당시의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또 다른 용법을 제시하는데, 나는 이것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연속성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세구라라고 합니다 .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지금 그는 그곳에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처음으로 제시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소유다. 그리고 너희는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다음 표현입니다. 사제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여기서의 생각은 이스라엘이 그런 종류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왕국의 신민으로서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와 구별된 나라. 종종 “거룩한”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카도쉬(qadosh)* 는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제시입니다.

비. 기본법 선포를 위한 정리      다음으로 b는 “기본법 선포를 위한 정리 - 출 19:9-25”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간단한 의견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이스라엘은 산을 만지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 산에 손을 대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16-18절에는 시내 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쳤다. 16절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진영 밖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맞으매 그들이 산 앞에 섰더라 시내



산이 연기로 덮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에  
강림하셨음이다. 그 연기가 가마에서 나오는 연기 같이 올라오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가니라. 그러자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꼭대기에 강림하셨다.”

여기 시나이산에 불, 연기, 번개, 천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어떤 연속성을 봅니다.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창세기 15장을 기억하십시오. 죽임을 당한  
동물의 사체들이 있었고 이 연기 나는 풀무가 죽임을 당한 동물들의 부분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자신에게 악의를 품은 맹세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상징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언약을 맺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브라함과 연기 나는 용광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다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와 함께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돌아가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은 또한 불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는 “가까이 가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훨씬 더 큰 규모의 불타는 떨기나무이고 주님은 다시 시내산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19장 24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무리하게 통과하여 여호와께로 올라오면 안 된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니라.” 이것이 근본 율법입니다.

씨. 선포된 기초 율법 - 출애굽기 20:1-17      그것은 우리를 c, “선포된 기초 율법 - 출애굽기 20:1-17” 로 이끕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법의 범주는 도덕, 의식 및 민법입니다. 십계명의 “기본”이라는 레이블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다스리도록 의도하신 영원한 원칙을 정의하는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원칙들이 공적 구원의 수단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아야 할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선택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애굽의 영적 육체적 속박에서 구속하셨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분의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자체가 구속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종종 법이 은혜에 반대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나중에 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 이러한 원칙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의 행위입니다.

## 1. 법률

22페이지의 인용문을 보십시오. 이것은 JA Motyer의 *구약 언약 신학*의 단락입니다. “언약 문서로서 이 이야기를 연구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구속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련의 사건을 단순히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율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려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올라가려고 헛되이 찾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신성하게 주어진 삶의 모형입니다. 보호하는 피 아래에서 쉬고 순례에 헌신한 이 사람들은 그들의 순례의 즉각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은 구속받은 백성의 앞과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모형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율법의 위치입니다. 신약에서 율법의 위치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점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빈 페이지를 잊어버리고 성경을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한 권의 책으로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율법과 은혜 이제 우리가 율법과 은혜의 문제에 올 때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연속성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것은 구약이 율법이고 신약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구약성경에는 은혜가 적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율법과 은혜가 같은 방식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있는 인용문의 23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것은 Gordon Wenham의 "Grace and Law in the Old Testament"에서 그가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은혜를 전제하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언약의 맥락에서 제정된 율법. 이것은 율법이 은혜를 전제하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은혜를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부르신 사람들에게만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이 법을 줍니다. "율법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속받은 자들이 그들의 신성한 왕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구원 상태에 내재된 축복을 더 많이 누리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입니다 ." 그래서 율법은 은혜를 전제로 하고 은혜의 수단이다.

20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것은 Motyer가 Wenham이 말한 것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말하는 또 다른 섹션입니다. 이것은 구약 종교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의 종교는 은혜, 율법, 은혜의 복합물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은혜와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르신 율법과 그들이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은혜, 율법, 은혜임을 보십시오. “이것이 구약 전문가들이 제기한 어려운 문제,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종교가 순전히 숭배와 희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종교가 순전히 윤리적 준수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약 종교의 시내산 모세 기초 공사가 은혜, 율법, 은혜를 함께 묶는 것, 순종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피를 하나로 묶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선지자들은 제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우선순위를 다시 주장함으로써 이에 대응했습니다. 이전의 부르심은 거룩함에 대한 것이었고 그 맥락에서 희생의 피는 사람들의 잘못을 대비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약 종교의 총체가 통일성을 찾는다.”

그런 다음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주제로 합니다. “요한일서 2 :1, 2에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새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헌신한 사람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고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마련을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페이지 하단에 있는 Walter Kaiser의 다음 항목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Toward Old Testament Ethics* 에서 . “율법의 목적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구약 시대의 남녀들이 선행을 함으로써,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구속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진실은 이 텍스트 해석이 성경적 증거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3. 세 언약: 아브라함, 시내산, 다윗

“구약의 역사는 대부분 세 가지 언약, 즉 아브라함 언약, 시내 언약,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의 내용은 구약성경 기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공통된 자료와 관심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은 Abrahamic 및 Davidic 언약을 왕실 보조금 유형 조약과 연결합니다. Moshe Weinfeld는 '땅' 과 '집' (왕조)에 대한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왕실[또는 신성한] 보조금' 이 후속 죄가 끼어들더라도 보호되고 보장되는 무조건적인 선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선물이 지연되거나 개별적으로 몰수될 수 있지만 줄을 서 있는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의 은사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부당한 자들이 일어날지라도 '영원한 언약' 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과 같은 내용을 많이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반 위에 놓였습니다. 왕실 보조금 조약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라 속국 조약 형식을 따릅니다. 확실히 이 계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복종해야 하는 가신의 의무는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이제 토론입니다. 시나이 언약에 대한 가신 조약 모델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때때로 약속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언약, 즉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인 율법 언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율법 언약은 조건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에 조건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율법 언약에 약속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대조를 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 언약에서는 의무가 강조됩니다. 약속 언약에서는 약속이 강조되지만 조건부와 약속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Kaiser가 함께 가는 곳에 주목하십시오. “이 시점에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완전히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모두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순종은 허락을 물려주신 분의 은혜와 선하심이 제거한 영적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수령인은 이러한 혜택을 얻지 못했지만 죄를 짓고 양도인의 호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슬픈 사건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선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걸으면 그들에게 참여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세대도 지나갈 것입니다.

둘째, 율법에 대한 순종은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축복을 증대시킵니다. 언약 문서의 역사적 서문에서 야훼의 은혜가 먼저라고 확정한 후에야 이스라엘에 대한 야훼의 요구 목록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We nham과 Motyer가 주장하는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계명이 던져지는 분위기와 맥락입니다. 그 서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에서 , 종살이하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12-26장의 세부 사항과 규정이 시작되기 전에 신명기 1-11장은 이 언약을 존재하게 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행위에 대한 모세의 설교를 기록함으로써 그러한 순종의 기초를 놓는다. 복은 참으로 순종 후에 올 것이지만, 율법에 대한 순종의 성취에 대한 공로가 있는 법적 보상은 아닙니다. 시내 언약의



패턴은 Gordon Wenham이 관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1)은 사람의 순종(2)보다 앞선다. 그러나 사람의 순종은 선택의 온전한 유익을 아는 전제 조건이다(3). Wenham이 한 것처럼 이 세 단계 각각은 출애굽기 19:4-5와 같은 텍스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것이 둘, 이스라엘의 의무-그것이 율법이다,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요”, 셋째, 순종을 위하여 더 큰 유익을 주겠다는 약속이 더해졌으나 은혜의 맥락에서 이미 받고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성과 절대성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남녀의 머리 위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논문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백성이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신명기 4:32-34, “너와 같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생존한 백성이 있었느냐?” ). 율법을 행하는 궁극적인 동기는 거룩함(레위기 20:26)과 행동(신명기 10:17-19; 14:1-2; 16:18-20)에서 주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약은 추상적 행동 강령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기초적인 율법이 기능하는 방식과 언약의 맥락에서 기능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로가 있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며 이스라엘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경솔하거나 부적절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구약에 은혜가 없고 신약에 율법이 없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사이에 대조가 없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이 과정에서 과정이 끝난 후 나에게 와서 구약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 나이 많은 학생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꽤 놀라운 진술이지만 이것은 경전이나 성경 지식에서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성경에 붙인 격자였으며 구약의 율법에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율법/은혜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구약성경을 읽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용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경 역사의 기초 과정을 수강한 분들은 22페이지에 있는 보스의 *성경 신학을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소 무거운 내용이지만 그는 여기서 신약에서 특정 진술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하단에서 율법이 기능하고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Vos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오경과 구약성서의 어떤 진술은 유대교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특권을 유지하는 것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계명을 행하는 자는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그들의 동정심은 바울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에게 있다고 선언한 저술가들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공로가 있는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옹호될 수 없으며, 광범위한 역사적 견지에서 볼 때 바울이 반대자들보다 율법의 취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했음을 증명하는데 잠시만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은 애굽에서의 구속이 성취된 후에 주어졌으며 백성들은 이미 언약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 특히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전의 율법 준수에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여행하는 동안 많은 율법 규정을 준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시점에서 생명 상속의 공로적 근거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후자는 오직 은혜에 근거하며, 바울 자신이 구원을 그 근거에 두는 것 못지않게 단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 준수가 받는 근거는 아닐지라도 상속된 특권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반박될 수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물론 실제 연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여호와의

소중한 선물을 지키려면 엄밀한 공의로 그들이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틀림없다고 그 연관성이 공로적임에 틀림없다고 추론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Vos가 해당 연결에 반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는 “연결은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예, 순종과 축복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로적 연관성이 아닙니다. 연결은 다른 종류입니다. “그것은 공로의 법적 영역에 속하지 않고 상징적-전형적 표현의 적절성 영역에 속합니다.” 이제 그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는 다음 단락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거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상태를 상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성결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에 절대적으로 일치한다는 이상이 옹호되어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바울의 영적 의미에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어도 외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지키지 못하였어도 그 요구를 낮출 수는 없었습니다. 전반적인 배교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남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거룩함의 상태를 예표하는 자격을 상실했을 때, 그들은 *사실상* 축복의 상태를 예표하는 자격을 상실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 순종으로 인해 그 땅에 남아 있는 것과 불순종으로 인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지만 순종에 대한 축복의 연관성은

그것을 얻은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적절성의 상징적 전형적인 영역. 만일 그들이 이 거룩함의 상태를 예표하는 데 자격이 없다면 그들은 축복의 예표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한 상당히 무거운 신학적 논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 사이의 연결의 의미 또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제 불순종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Vos가 제안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척도가 어떻든 어쨌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모세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합의를 원했고 그런 종류의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는 모세가 따라야 할 원칙을 제시했음을 발견합니다. 나는 그들이 모세가 중재자이며 그가 말한 것이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를 바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곧 다른 연결에서 그 질문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아마도 우리는 다른 문제를 논의할 때 그것에 대해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디. 백성의 두려움 - 출애굽기 20:18-21 출애굽기 20:18-21에 있는 d, “백성의 두려움” 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것은 십계명을 준 후입니다. 백성이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중재자를 요청했습니다.

이자형. 언약의 책 -- 출애굽기 20:22-23:33 그것은 우리를 “언약의 책, 출애굽기 20:22-23:33”으로 인도합니다. 그 자료인 출애굽기 20장 22절을 훑어보면 제단을 쌓는 방법과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있음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23장 끝까지, 당신은 특정 유형의 상황에 도덕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법적 자료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언약서의 내용은 기본법과는 다른 수준의 특수성 또는 구체성에 있습니다. 언약서의 법적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특정 유형의 상황에 기본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1. 기본법과 언약서 25-27쪽 인용문을 보시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읽고 싶지는 않지만 DR Hiller의 책 *Covenant: The History of a Biblical Idea* 에서 가져온 몇 가지 예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기본법에 “살인하지 말라” 는 계명이 있습니다. 25페이지 아래로 3분의 2가 보입니다. 십계명 중 하나입니다. 언약의 책을 접하게 되면 그 원칙을 특정 상황에 적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2-14절은 “사람을 치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나 고의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곳을 지정하여 너희가 피할 수 있게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 대하여 악의로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 잡아 처형할 것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21:18-25은 또 다른 종류의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출애굽기 21장 28-32절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쳐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죽이고 그 고기를 먹지 말지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일반 원칙을 연습니다. 당신은 살인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언약서의 자료에서 특정한 유형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을 연습니다.

십계명 중 또 다른 하나인 26쪽에 있는 “간음하지 말라” 를 조금 더 내려가 보십시오. 그것은 출애굽기 22:15-16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27페이지 맨 위,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종류의 특정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연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책은 기초 율법과는 다른 수준의 구체성이나 구체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도덕법을 근본법이라고 합니다.

2. 판례법 언약서의 내용은 예배, 히브리 노예의 권리, 재산권, 각종 사회적 책임 등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판례법” 형식으로 공식화됩니다. 판례 형식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입니다. 그리고 판례법은 특정 유형의 상황과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다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 관습적 관행의 법적 전통의 오랜 역사에서 나옵니다. 다양한 종류의 법은 예배, 히브리 노예의 권리, 재산권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몇 가지 참고 자료를 줄 것입니다: 예배는 20:22-26; 히브리 노예의 권리 21:1-11; 22:1-15의 재산권; 그리고 22:16-31에서 다양한 다른 종류의 사회적 책임.

3. 고대 근동 법전 자 , 여기 많은 사람들이 “언약 법전”이라고 부르는 법전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대 근동에 성경에 없는 많은 법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책. 다섯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메르 법전인 **Ur-Nammu 법전** 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우르 제3왕조에서 유래했습니다. 수메리아의 우르 유적지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와 거의 같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시대의 법전입니다. 둘째, 오늘날의 바그다드 근처에 있는 엘람 도시에서 1세기 후에 **나온 에슈나 법**이 있습니다 . 엘람인들은 우르에서 수메르인들을 몰아냈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왕국과 기원전 1900년경에 그들에게서 나온 법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기원전 1870년경의 **리피트-이쉬타르 법전**이



있습니다. 또한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수메르인입니다 . 넷째, 기원전 1700년경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 마지막** 으로 기원전 1500년경의 **히타이트 법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Pritchard의 *고대 근동 텍스트* 또는 Hallo의 *The Context of Scripture*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고대 근동 법전과 언약서의 비교 출애굽기의 언약서에서 발견한 법과 성경 이외의 법전에서 발견한 법을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렇게 할 때 특정 장소에서 언약서의 법과 다른 고대 근동 법전의 법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 외의 법전 중 하나의 법과 유사한 언약의 책에서 가장 명확한 법은 황소 사냥에 관한 출애굽기 21:28-32 일 것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공격하면 그 소를 돌로 쳐죽이고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의 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일 그 소가 버릇이 있어 주인에게 경고를 받고도 가두지 아니하여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이고 그 주인도 죽여야 한다. 그러나 지불이 요구되는 경우 그는 그의 생명을 구속하고 지불할 수 있습니다. 황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죽였으면 주인은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하고 그 황소는 돌로 쳐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35절에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시켜 죽으면 산 것을 팔아 그 돈과 죽은 것을 균등하게 나눌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크게 괴롭히지 않는 경우이지만

아마도 농업에서 꽤 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5절을 슬라이드 19에 있는 Eshunna 법의 53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십시오. 죽은 황소 .” 따라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법전 중 하나 또는 다른 법전에서 모세 법전의 공식과 매우 유사한 법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자료를 준 당시에 율법의 공식화는 당시의 율법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관찰할 때 질문이 생깁니다.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서는 당시의 법적 전통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5. 언약서 법의 기원은 무엇인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하는데, 그 질문은 언약서의 법적 자료의 기원을 어떻게 이해하거나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약서의 모든 법적 자료는 완전히 새로운 것, 즉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법적 형식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언약서에 기록된 모든 율법과 율법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자료를 주기 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까? 다시 말해, 이 율법의 성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신성하게 승인된 율법이라고 말하려는 경우, 그 형식이 그 시대의 법적 전통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가정해야 합니까? 언약의 책을 읽으면 대부분의 법이 소위 “판례법”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꽤 빨리 명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IF 이러 저러한 THEN 여기에 당신이 그것에

대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판례법 형식은 특정 유형의 법적 문제에 대한 이전의 사법적 선언을 체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고대 법률 코드에서 일반적입니다.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너희가 그들 앞에 세울 규례는 이러하니라” 를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모세에게 지시하시거나 기존의 법전과는 별도로 주신 것이라고 해서 강조점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율법의 체계를 공식화할 때 모세가 그 시대의 법적 전통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식을 사용하고 포함시켰다.

6. 입법자로서의 모세 그렇기 때문에 앞서 18장에 있는 그 말과 15절에 있는 이드로의 충고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당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법령과 법을 알리십시오.” 모세는 이전에 18장에서 신성한 권위로 말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 포함된 신성한 영감의 방법에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서 성장하면서 받은 법적 지식과 훈련, 그리고 그가 받은 교육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 내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마도 이 고대 법전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시의 법적 전통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의 공식화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거기에 몇 가지 자격을 부여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종 결론은 이 성경 자료가 성경 외의 법전에서 차용되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결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공식화를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성경에는 이에 대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Olivia M. Gray 작성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Katie Ells의 최종 편집

Ted Hildebrandt가 다시 설명함